

# 지방선거에 밀린 대선?...민주, 텃밭서도 뜨지않는 선거열기

광주전남 공동 출정식 참여 저조  
지역 국회의원 참여도 들쭉날쭉  
지방선거 출마자 잇단 출판기념회  
지역 유세 일정조차 공유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6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열린 'JM은 강남스타일' 선거 유세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열린 거점유세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답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6일 더불어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광주와 전남에서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박빙의 선거 판세인데도 텃밭 광주·전남에서조차 민주당의 선거운동 열기가 이전만 못하기 때문이다.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갑작스런 한파로 인한 탓도 있지만, 당원과 선출직 공직자 등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경선 상처가 아물지 않아 원팀을 이루지 못해서 인지, 끈이어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민주당 사람들이 참여도가 저조하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각 지역위원회별로 출근길 인사와 유세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선거운동이 맥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지난 15일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에서 열린 광주·전남 선대위 공동 출정식의 저조한 참여도 지적되고 있다. 이는 대선 운동 기간에도 이어지고 있는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출판기념회에 더해 사도 선대위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 평가가 나온다. 실제 지난 15일 열린 민주당 광주전남 선대위 공동 출정식에는 약 300명 안팎의 민주당 관계자와 지지자들이 참여했는데, 이를 두고는 민주당 중앙당에서조차 텃밭이 나왔다.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

직자만 광주와 전남에 300명이 넘는 지역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당직자, 지지자들이 모여 승리를 다짐하는 자리에 참석한 이들이 고작 300명 안팎이라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갑자기 기운이 뚝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출정식이 세(勢) 과시는커녕 초라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지역 국회의원의 참여 열기도 제각각이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누구를 밀었느냐, 후보와의 친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참여도가 다르다는 이야기도 있다. 지역의 한 국회의원조차 "공식 선거운

동 첫날부터 기운이 뚝 떨어져서인지 예전과는 분위기가 매우 달랐다. (선출직 공직자, 당직자 뿐 아니라) 시민들 호응도 이전만 못 한 것 같다. (민주당에 대한) 열정이 예전만 못하다고 할까. 출기도 하고라며 "그러나 선거 막판에 가면 미워도 어쩔 것"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일부에서는 "후보 방문 일정 등 지역 관련 주요 사항을 지역 국회의원들과 막판까지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데 선거 운동 참여 열기가 뜨거울 수 있겠느냐"는 불만도 새어나온다. 민주당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출판기념회를

이따라 열고 있는 것도 이례적으로 비쳐진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호남권에서 20%를 오가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전남에서조차 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앙당은 3월 9일 대선 전까지 예비후보 등록 등 지방선거 일정을 늦추고 대선에만 전념해달라고 각 시도당에 당부했지만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자기 정치"를 이어가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들을 막아서지 않고 있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코로나 19 유행, 대선 일정과 무관하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선거를 염두에 둔 전남도의원 8명은 출마예정지에서 출판기념회를 예고했고 이들 중 4명의 출판기념회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과 겹친다. 전남도당의 기능이 약화된 점도 지적된다. 대선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이 지난 15일로 수년 전부터 확정된 공지의 사실임에도 지역 유세 일정과 장소 등 기본적 사항을 담은 자료는 이틀날인 16일 오후 늦게서야 안내하고, 양대 선거를 앞두고도 사무처 공석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대선 여론조사 브리핑

### 윤석열 42.4%·이재명 41.9%...0.5%p차 초박빙

한길리서치 조사...안철수 7.2%  
다자 가상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0.5% 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전날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투표일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안겉수 판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길리서치가 쿠기뉴스 의뢰로 지난 12~1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 후보는 42.4%, 이 후보는 41.9%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두 후보간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 3.1%포인트) 내인 0.5%포인트다. 직전 조사(2월 2일)와 비교해 이 후보는 1.5%포인트, 윤 후보는 3.9%포인트 각각 올랐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2월 15일)을 목전에 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인 데다 논란을 빚었던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9일)까지 나오면서 양쪽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포인트 내린 7.2%,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3%포인트 하락한 2.0%였다. 기타-부동층은 6.6%로 집계됐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야권 단일화 시나리오와 관련, 윤 후보로의 단일화 시 윤 후보 47.4%, 이 후보 43.7%로 나타났다. 3.7%포인트 격차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안 후보로의 단일화 시 이 후보 40.4%, 안 후보 33.4%로 조사됐다. 이 후보가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격차로 우위를 보인다는 결과다. 직전 조사에서는 단일화 시 이 후보 42.2%, 윤 후보 42.1%, 이 후보 41.3% 안 후보 31.5%를 각각 기록한 바 있다. 이번 대선의 성격을 두고는 '야당인 국민의힘 등으로 정권교체'로 답한 비율이 50.7%, '여당인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이 40.6%로 나타났다. 정권교체 여론은 직전 조사 대비 4.3%포인트 오른 반면, 정권 재창출은 0.3%포인트 빠졌다. 이 설문조사는 우선 전화 면접 19.4% 무선 ARS 80.6%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응급키트 비치하고 실외 방역기 설치 오미크론 확산에 대선 거리유세 비상

후보, 접촉 최대한 줄이고  
비대면 유세안도 고민 중

본격적인 선거전 막이 올랐지만 오미크론 탓에 거리 유세에도 비상이 걸렸다. 16일 더불어민주당은 현장통제 봉사단을 꾸려 유세 현장의 거리두기를 돕고, 참가자들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따르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코로나상황실장이자 유세부단장인 신현영 의원은 16일 연합뉴스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못 하게 하는 방식으로 유세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마스크를 쓰고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현장 사회자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멘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유세단에 매일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 신속 항원 검사 키트와 체온계, 해열제 등 응급키트를 구비하고, 선대위 내 방역 담당자를 뒤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핫라인'도 구축했다. 최근에는 회의 때 마스크를 절대 벗지 않도록 하고, 음료를 다과를 내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후보와 접촉이 잦은 선대위 부부장단이 마스크를 2개씩 착용하는 것도 눈에 띈다.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 하얀 마스크 위에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적힌 파란 마스크까지 착용한 채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거리두기 지침이 유세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방역 물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전남 열린 중구 청계광장 출정식에서도 가슴기 형태의 공중 방역기를 설치했다. 물

려든 지지자들 머리 위로 방역 입자를 뿌려 비말 확산을 막는 방식이다. 이주환 총괄유세단장은 "거리두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인원이 많이 운집하는 곳은 실외방역기를 계속 사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남 윤석열 후보의 응징이 문화의 거리 유세에는 400여명, 대구 동대구역 광장 유세에는 최소 1천명 이상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운집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른 방역 당국의 대처를 주시하며 비대면 유세안도 고민 중이다. 이 단장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거리두기 등 방역을 강화하는 수준이 되면 우리 유세도 정책에 맞춰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후보가 확진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윤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 접촉을 줄이고 외부인과 만남도 최소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062)531-3530, H. 010-9229-3530

봄에 떠나는 그라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매주 금,토,일 광주출발 셔틀버스 운행

**당일투어 1인 139,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199,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마이투어:062-385-0515 아이티여행사:062-382-8866